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가정불교 미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김경자씨 가족은 매일 아침 가족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5년 전 부인 김씨의 권유로 봉은불교대학을 졸업한 남편 전봉수씨가 매일 아침 천수경, 화엄경 등 경전을 독송하며 시작된 가족법회에 아들 딸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다. IMF로 힘들었던 지난 하에도 가족이 일심으로 기도정진하며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갔다. 김씨 부부는 "가족법회를 통해 가족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노력하다보니 남편보다 안정되고, 생활이 즐겁다"고 말한다. 건강한 불자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도량이요, 가족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은 바로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자가정에서의 가족법회를 통한 신앙생활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가족을 불자로 이끄려는 노력도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해 10월 본사가 실시한 가족법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족법회를 병행하는 가정은 10곳 중 2곳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가족법회를 병행하는 불자들 중 절반가량이 45.6%가 불규칙하게 병행하고 있어 아직 가족법회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불자들의 가족불자화에 대한 소극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온가족이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가르침과 행복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가족법회를 여는 일이 힘들다면 생활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식사 때마다 공양게송을 함께 독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각종 불자가정의례와 발원문 등의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가족법회교재도 선보이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온가족이 한 자리에서 가족법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 통도사 부산포교원 '한나래 문화재단' 설립 '문화로 포교' 새모델 제시

문화·예술·복지등 강좌 개설...청소년예술제도 주관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이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문화포교에 나선다. 통도사부산포교원은 부산시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고, 16일 보충 자료 제출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8월말 허가와 등록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계 최초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한나래 문화재단. 다양한 문화행사와 강좌로 호응을 얻고 있는 통도사부산포교원의 사회적 활동폭을 넓히고, 불교계 문화포교의 전문화를 제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과 크다는 뜻의 '한'과 웅비한다는 의미의 '나래'를 합친 한나래문화재단은 우리 민족 정신의 중심에서 서온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우리문화 창달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문화, 예술, 복지, 국제, 체육을 선정해 놓고 있다. 한나래문화재단의 설립은 이런 각종 문화행사, 문화강좌에 일반인의 참여폭을 넓히고 개설 강좌의 수준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목적사업은 이미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설기관인 국제포교부와 문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도, 한지공예, 송전빛기, 전래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국제포교부의 외국인 우리문화기행과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의 사물놀이, 가야금, 판소리, 대금, 단소 등의 전통문화 강좌를 문화관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불교계 최초 전문 무용단 우바이무용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심산스님은 "문화재단 설립은 포교활동의 객관성, 일반성을 확보하는 효과와 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종교적 한계를 뛰어넘는 포교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한나래문화재단 설립을 계기로 부산일보사 주최의 전국청소년예술제를 주관해 9월 19일 부산교육대학에서 개최한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는 시조창, 시조백일장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문화의 정을 제공하게 된다. 천희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한마음으로 다시서자 '구슬땀' "아주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그릇부터 뒤으면 되겠지요" 수미가 활짝웃고 심지를 달콤히 씻어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빠르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3대역영은 연천 파주 문신일대 수해현장에서 일원기정과 상가 유치원 등의 기제도구 정리와 청소, 빨래등 굵은 일을 도맡아 하며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했다. <관련기사 23면>

### 8·15법회 남북 동시 타종

"7천만 민족 희망의 큰걸음 염원"

분단희생자 천도재도 재를 봉행했다. 한편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99 불교도 전국순례단(공동단장 현각, 도각)은 9일 법어사 보재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구 진주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수원을 거쳐 15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시민행사를 전개하고 조계사 8·15 법회에서 회향하여 분위기를 돋웠다. 김원우 기자

### "종단진흥회 해체" 종단협 회의 '결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8월 정기 대표자회의를 열어 종단진흥회에 관해 논의하고 회장 중심으로 단결해 불교발전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흥화종 원용종 등의 종단이 천족 목적으로 96년 결성한 종단진흥회가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협은 또 수혜이재민 구호사업의 적극 추진, 지하철역사 포교보급관 설치 사업 후원 등을 결의했다. 정성운 기자

### 구산선문 참선 기행

9월: 희양산문(봉암사)·대승사·김용사

9월에는 지증선사 도원스님(824~882)에 의해 개창된 희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를 찾아갑니다. 봉암사에서는 지증선사 부도(보물 제137호)와 상공석탑(보물 제169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오백년 고찰 대승사에서는 화려한 목각탱,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김용사에서는 괴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82년 조계종 특별수도 도량으로 지정된 봉암사는 1년에 15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이번 기행은 봉암사를 참배할 수 있는 더욱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발: 9월 4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지광스님(김용사 주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 <www.buddhan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약양품·대한불교제과인회

### 생명나눔 8월 대법회

현행·확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1차: 8월 25일(백중·수요일) 오전 10시 신촌 불원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생명나눔) (02)392-3008(봉원사)

### "민영교도소 운영 시기상조"

조계종, 법무부에 반대입장 전달 <조계종은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특정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정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3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준비단계조차 지 않은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성급한 시도"라며 "단계별 시행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교정시설의 운영주체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외국의 운영사례에서도 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적은 인원에 부과된 과중한 업무량, 이에 따른 재소자의 인권유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 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계좌: 8003478 국민은행: 827-25-0020-943  
 \* 통신회계: 069-01-238223 신한은행: 189-13-03929-3  
 \* 예금주: 불교방송  
 ☎121-050 서울 서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66-5680-11)

대행스님 독일대법회 현장 11면

조선초 간행 '삼국유사' 발견 7면

맑은 물, 깨끗한 자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